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호응할 때에도 또한 정적이 없다.

마음은 작용할 때나 작용하지 않을 때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찾아도 있다고 할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러면서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서 온갖 작용을 다하고 있기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분명 작용은 있는데 몰종적(沒動)으로 흔적이 없으니,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마음이란 전도몽상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그 이치를 알아들어도 마침내 소화가 안 되어 마냥 더부룩하기만 한데, 일단 의심의 문치가 한 번 더져나가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아직 공부가 안 된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란 생각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간파해야 한다. 이럴 때 학인은 “그러면 사구(四句)와 백비(百非), 모든 것을 부정한 입장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고 묻게 된다. 눈 밝은 선지식이라면 풀을 쳐서 뱀을 시험해보듯이 타초경사(打草驚蛇) 하여 상대방을 간파한다.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교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인지의 담박에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진짜 약이 오른 뱀이라면,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탁 더져나가게 만들어준다. 만일 진정 근본에 대한 의심으로 꼭 차있는 학인이라면, 바로 터지든지 아니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의단(疑團)이 더욱 몽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기원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머물러 할 수 있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있다 없다는 입장을 넘어선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것이 곧 머무름이 없는 ‘무주(無住)’다. 제불보살께서는 언제나 이곳에 계신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지만, 무명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눈 뜬 잠금이 되어 망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눈 뜬 잠남에게는 천지가 어둠 속이지만, 다만 눈만 떠버리면 선 자리가 그대로 개명천지의 정도다.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 잠 속에서 계속 악몽에 시달리느냐는 선택을 진실 되게 받아들일 때, 공부의 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문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보살이 보리심을 발한 다음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여쭙었을 때, 부처님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1)



범야사 주지

마음은 모양이 없기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마음은 본래 머문 바 없기 때문에,

보살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다.

마음이 담연하게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기 때문에, 육도윤회하며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

한 마음 사라지면,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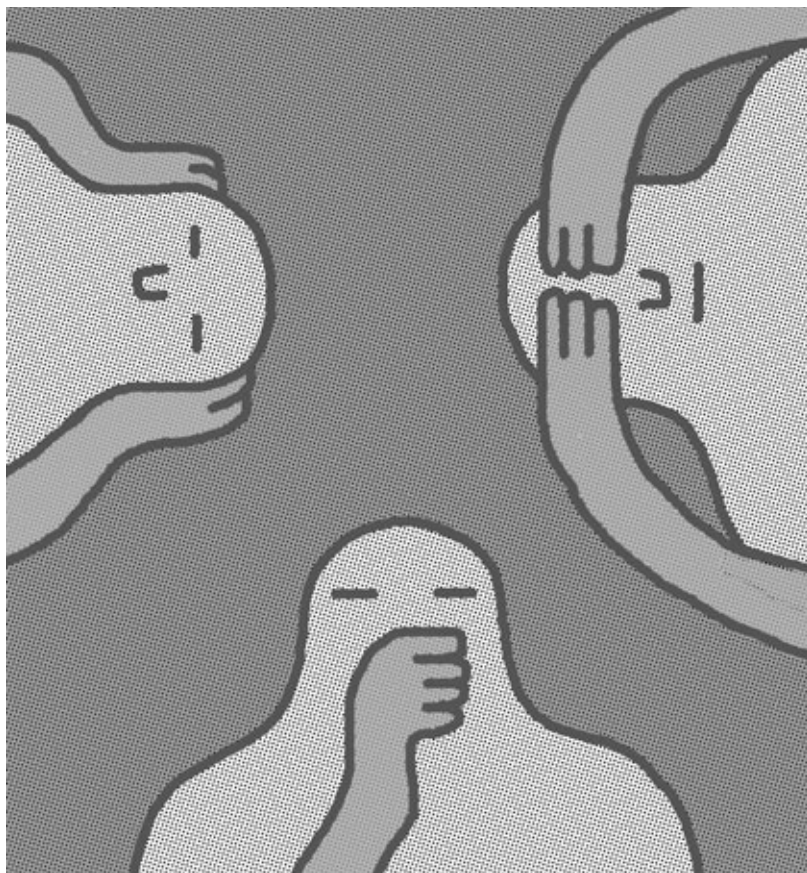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육조 혜능스님께서도 이 ‘응무소주이생기심’ 구절에서 몰록 깨치셨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머문 바가 없다. 본래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본래 머무는 바 없는 이 마음에 제한하면 그만이지, 세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려고 애쓰는 것은 부처님이나 조사의 뜻에 어긋난다. 무위법을 알아듣고, 만사를 내려놓고 바보 천치가 되어 시간 보낼 줄 아는 것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바른 공부길이다.

모든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인연을 좇아 조작하고 마음이 육도를 떠돌며 가만있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 몇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 비로소 조복시킨다.’고 하였다.

마음이 담연하게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떠돌기 때문에, 육도 윤회하며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 경계를 반연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일어나서 훌쩍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돌아보면 아득히 일장춘몽인데, 백발이 성성하니 북망산이 가까운 것이다. 오랫동안 이렇게 떠돌던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 같아서 조금도 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대상을 기웃거리며 집착하게 된다. 그럴 땐 방편을 써서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원숭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비로소 마음을 조복시키고, 본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본지풍광에서 안심입명 하

게끔 이끄는 것이다. 마음공부에 입문하여 조금이라도 체를 맞본 사람도 업력에 의해 때때로 뒤집어지는 때한가지다. 여기 배후 재상도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무언가 맛을 보았지만, 아직도 업력에 의해 원숭이처럼 의심 많은 마음이 묻고 또 물으면서 다스리지까지 선지식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여 완전한 것은 일체가 평등하여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 집을 떠나 밖으로 떠돈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업력 따라 차등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는 묵묵히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 온갖 경계가 펼쳐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 그러나 무념무상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외도가 된다. 무념무상을 만들려는 그 마음이 본래 무념무상을 가리고 마음을 밖으로 찾아 나서게 하여 평자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여튼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한다. 보리자성이 본래정정 하다고 하니, 그 말을 딱 믿고 모든 허튼 노력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근본이 드러날 텐데, 다만 원숭이 마음이 가만있지를 못하고 천지사방을 쏘다니다서 온갖 좋다는 법을 다 배워 속내 더부룩이 쑥스럽고 소화도 못시키고 알음알임 가중시키니 고향 돌아갈 날은 더욱 아득하기만 하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97



사람·하늘·용·신이 되어주시네

〈무량의경(無量義經)〉

신은 누구인가?

얼마 전, 남쪽의 한 절에 다녀왔다. 자원 봉사로 해설을 해주시는 불자님이 계셔서, 어느 때보다 도량을 진지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그 큰 절에서, 특이한 것(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람각(伽藍閣)’의 존재였다.

친절한 문화유산해설사는 “주지스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러나 정작 ‘가람각’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셨다. 무슨 부처님이라 하였으나, 역시 ‘가람신’이 아닌가 싶었다.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셋이었다. 중국의 절에서도 ‘가람전’은 흔한데, 그 분은 바로 관성(關聖, 삼국지)의 주인공 관운장, 도교에서 신으로 모신다. 이다. 도교의 신을 데려다가 불교의 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은 것이다.

“주지스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주지스님의 도량수호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이기도 했고, 도량의 수호신인 신중 한분 한분의 존재에 대한 경건한 신심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대체 가람신은 누구이길래, 주지스님이 그렇게 간절히 예배한다는 말씀일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각론적 고찰에 약하다. 그 절의 ‘가람각’에 모셔진 가람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저 ‘신중’의 한 분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중의 존재를 말하는 〈화엄경〉의 제1품을 찾아보았다. 60권본 〈화엄경〉 제1품의 제목이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금강역사를 비롯하여, 도량신 등 신중들을 나열하고 있다. 〈화엄경약찬〉에도 등장하는 “주·오·신”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다 그와같은 신중들이다.

“오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이니, 산, 나무, 물... 등등 자연현상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에는 사실상 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혹은 그 존재들이 다 신이다)는 입장이다. 다신교(多神敎)이다. 이 다신교의 세계를 〈화엄경〉에서는 받아들여서, 그 만다라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었다 볼 수 있으리라.

신이 된 까닭

도대체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엄경〉(60권본)을 열어보았다. 과거에 한량없는

시간 이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큰 서원을 세웠다. 깊이 수행한 덕분에 수많은 공덕이 생겼다. 이제 불가사의한 해탈경계를 내보일 수 있게 되자, “모든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마땅히 제도할 만한 자들에게는 능히 그 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답이 나왔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중, 즉 불교의 수호신들은 그 위상이 ‘보신(報身)’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신은 수행의 과보로 얻어진 몸이다. 아미타불 같은 분도 보신이다. 48가지 서원을 세우신 뒤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思惟, 명상)한 결과 아미타불이 되셨기 때문이다.

신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서 공덕을 성취한 뒤에는, 즉 보신이 된 뒤에는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능히 그 몸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이는 화신(化身)을 나타



그림 · 박구원

투신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가람각’의 가람신도 그러한 화신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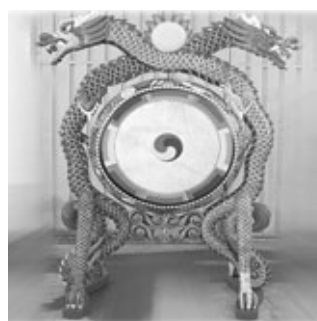
그런데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무량의경〉 덕행품(德行品)에서도 반복된다. “세존께서는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동안 / 갖가지 덕행을 정성껏 부지런히 닦았기에 / 우리를 위하여 사람, 하늘, 용, 신, 왕이 되어주시고 / 두루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 버리기 어려운 재물과 보배, 처자와 나라까지 / 능히 다 버리시며 / 안으로든 밖으로든 아끼는 것이 없으시니 / 머리, 눈, 골수 등도 모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네.”

세존 부처님께서 직접 천(天=神), 용, 신들로 나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찌 신중이 우리의 숭배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t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